

## 가정의학과 외래 방문환자의 가정의학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인식\*

개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안형우·이미은·강희철·배철영·신동학

### 서 론

지난 수십년동안 의학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의료개념이 소수의 혜택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의료는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의학분야의 전문화 및 세분화에 발맞추어 60년대부터 도입된 단과지문의 제도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응하여 쉽게 정착되고 발전해 왔으나, 오히려 의료의 지나친 세분화, 의료의 비인간화, 환자의 종합병원 집중,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 의사-환자의 불신관계,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등의 문제점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이와같은 의료의 역기능에 대해 Fry<sup>4)</sup>는 이렇게 세분화된 단과전문의 제도의 보순점의 해결책으로서 획적으로 통합된 가정의학을 주장하였으며, 증상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연령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질병과 가족간의 상호관계를 알고 식별한 사문 및 의료의 조정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정의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sup>5)</sup>.

그리고 국민들의 종합병원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제도상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1989년 7월 1일부터 국민개보험이 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정의학과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며, 대구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가정의학과가 생긴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가정의학과의 인식과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본연구는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의학 및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6개월 전의 본원을 대상으로한 인식도에 관한 연구<sup>6)</sup>와 비교하여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증진여부를 조사하고 가정의학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1989. 7. 1부터 외래진료를 보기 시작한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1990. 8. 15부터 9. 15까지 내원한 신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에 6개월 전 본원 가정의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up>6)</sup>와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시 15세이하와 75세이상의 환자에 대해 선 보호자와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후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한 후 6개월전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X<sup>2</sup>-검정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총 500명 중 남자는 204명(40.8%)이

\* 이 논문은 1991년도 계명대학교 올종연구비 및 동산의료원 조사연구비로 이루어졌다.

었고 여자는 296명(59.2%)으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210명(42.0%), 30~50세가 217명(43.4%), 50세 이상이 73명(14.6%)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226명(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195명(39.0%), 대재이상이 79명(15.8%)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sex	male	204(40.8%)
	female	296(59.2%)
age(years)	< 30	210(42.0%)
	30~50	217(43.4%)
	> 50	73(14.6%)
education	< middle school	226(45.2%)
	high school	195(39.0%)
	> college	79(15.8%)
total		500(100.0%)

## 2.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가정의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해 399명(79.8%)이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101명(20.0%)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각 특성에 따른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을 보면 연령별에서는 30세미만이 175명(83.3%), 30~50세가 171명(79.1%) 그리고 50세이상이 57명(78.1%)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인식도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론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이하가 164명(72.6%), 고졸이 163명(83.6%) 그리고 대재이상이 69명(87.3%)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알고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Table 2).

6개월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sup>1)</sup> 6개월전에는 34.6%가 알고 있었으나 현재 79.8%로 6개월전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연령별에 있어 30세미만이 6개월전의 42.0%에서 83.3%, 30~50세에서 38.3%에서 79.1% 그리고 50세이상이 23.9%에서 78.1%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나( $p < 0.05$ )

Table 2 Knowledge of family medicine

		ever heard	never heard
age(years)	< 30	175(83.3%)	35(16.7%)
	30~50	171(79.1%)	46(20.9%)
	> 50	57(78.1%)	16(21.9%)
'education	< middle school	164(72.6%)	62(27.4%)
	high school	163(83.6%)	32(16.4%)
	> college	69(87.3%)	16(12.7%)
total		399(79.8%)	101(20.2%)

\*  $p < 0.05$

교육수준에 있어 중졸이하가 6개월전 22.6%에서 72.6%, 고졸이 41.9%에서 83.6% 그리고 대재이상이 56.3%에서 87.3%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Table 3).

## 3 복합증상이 있을 때 과선호도

조사대상자 중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때 어느 곳에서 진찰받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422명(84.4%)이 가정의학과에서 여러가지 증상을 같이 해결하고 싶어 했으며, 연령별에서는 30세미만이 188명(89.5%), 30~50세가 178명(85.5%) 그리고 50세이상에서 61명(75.9%)으로 서연령층일수록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고 싶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이하가 180명(79.6%), 고졸이 168명(86.2%) 그리고 대재이상이 69명(87.3%)으로 고학력일수록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고 싶어 했었다(Table 4).

## 4 가족등록제도에 대한 인식도

가정의학과의 특성중의 하나인 “가족등록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남자 46명(22.5%), 여자 84명(28.4%)이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30세미만이 55명(26.2%), 30~50세에서 58명(26.7%) 그리고 50세이상이 19명(26.0%)으로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중졸이하가 68명(30.5%), 고졸이 45명(23.1%) 그리고 대재이상이 20명(25.3%)으로 교육수준별 차이가 없었다(Table 5).

## 5 가정의학제도의 필요성

가정의학제도의 필요여부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390명(78.0%)이 “필요하나”, 38명(7.6%)이 “필

Table 3. Comparision of family medicine between 6 months ago and now

		ever heard	never heard
age(years) < 30	6 months ago	74(42.0%)	102(58.0%)
	now	175(83.3%)*	35(16.7%)
30~50	6 months ago	111(38.3%)	179(61.7%)
	now	171(79.1%)*	46(20.9%)
> 50	6 months ago	52(23.9%)	166(76.1%)
	now	57(78.1%)*	16(21.9%)
*education < middle school	6 months ago	76(22.6%)	260(77.4%)
	now	164(72.6%)*	62(27.4%)
high school	6 months ago	99(41.9%)	137(58.1%)
	now	163(83.6%)*	32(16.4%)
> college	6 months ago	63(56.3%)	49(43.8%)
	now	69(87.3%)*	10(12.7%)
total	6 months ago	237(34.6%)	447(65.4%)
	now	399(79.8%)	101(80.2%)

\* p < 0.05

Table 4 Specialty selection when multiple complaints are present

		family medicine	other specialty
sex	male	172(84.3%)	32(15.7%)
	female	250(84.5%)	46(15.5%)
age(years) < 30		188(89.5%)	22(10.5%)
	30~50	178(85.5%)	39(14.5%)
> 50		61(75.9%)	12(24.4%)
	education	180(79.6%)	46(20.4%)
< middle school	high school	168(86.2%)	27(13.8%)
	> college	69(87.3%)	10(12.7%)

요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30세 미만이 164명(78.1%), 30~50세에서 161명(74.2%) 그리고 50세 이상이 65명(89.0%)으로 연령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이 하가 171명(75.7%), 고졸이 145명(74.4%) 그리고 대재이상이 74명(93.6%)으로 고학력일수록 가정의학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6)

Table 5 Knowledge of family registration system

		ever heard	never heard
sex	male	46(22.5%)	158(77.5%)
	female	84(28.4%)	212(71.6%)
age(years) < 30		55(26.2%)	155(73.8%)
	30~50	58(26.7%)	159(73.3%)
> 50		19(26.0%)	54(74.0%)
	education	68(30.5%)	158(69.5%)
< middle school	high school	45(23.1%)	150(76.9%)
	> college	20(25.3%)	59(74.7%)

과거의 조사와 비교해볼 때<sup>10)</sup> 6개월 전 “필요하다”가 60.2%에서 78.0%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연령별에 있어 30세 미만이 6개월 전에 55.7%에서 78.1%, 30~50세에서 60.0%에서 74.2% 그리고 50세 이상이 64.2%에서 89.0%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교육수준별에 있어서도 중졸이 하가 6개월 전 61.0%에서 75.7%, 고졸이 59.7%에서 74.4%로 그리고

Table 6 Attitude of family medicine

	positive	negative	neutral
age(years) < 30	164(78.1%)	19(9.0%)	27(12.9%)
	30~50	161(74.2%)	15(6.9%)
	> 50	65(89.0%)	4(5.5%)
*education < middle school	171(75.7%)	16(7.1%)	39(17.2%)
	high school	145(74.4%)	118(9.2%)
	> college	74(93.7%)	4(5.1%)
total	390(78.0%)	38(7.6%)	72(14.4%)

\* p &lt; 0.05

Table 7 Comparision of attitude of family medicine between 6 months ago and now

		positive	negative	neutral
age(years) < 30	6 months ago	98(55.7%)	65(36.9%)	13(7.4%)
	now	164(78.1%)*	19(9.0%)	27(12.9%)
30~50	6 months ago	174(60.0%)	106(36.6%)	10(3.4%)
	now	161(74.2%)*	15(6.9%)	41(18.9%)
> 50	6 months ago	140(64.2%)	73(33.5%)	5(2.3%)
	now	65(89.0%)*	4(5.5%)	4(5.5%)
*education < middle school	6 months ago	205(61.0%)	118(35.2%)	13(3.8%)
	now	171(75.7%)*	16(7.1%)	39(17.2%)
high school	6 months ago	141(59.7%)	86(36.5%)	9(3.8%)
	now	145(74.4%)*	18(9.2%)	32(16.4%)
> college	6 months ago	66(58.9%)	40(35.7%)	6(5.4%)
	now	74(93.7%)*	4(5.1%)	1(1.2%)
total	6 months ago	412(60.2%)	244(35.7%)	28(4.1%)
	now	390(78.0%)*	38(7.6%)	72(14.4%)

\* p &lt; 0.05

내재이상이 58.9%에서 93.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Table 7)

#### 6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

1989.7.1부터 시행된 국민개보협 이후 변경된 의료전달체계 인식도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237명(47.4%)이 “들은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263명(52.6%)이 “들은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연령별에서는 30세미만이 103명(49.0%), 30~50세가 101명(46.5%) 그리고 50세이상이 33명(45.2%)으로 “들은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연령별에 따

Table 8 Knowledge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ever heard	never heard
age(years) < 30	103(49.0%)	107(51.0%)
	30~50	101(46.5%) 116(53.5%)
	> 50	33(45.2%) 40(54.8%)
*education < middle school	95(42.0%)	131(58.0%)
	high school	94(48.2%) 101(51.8%)
	> college	48(60.8%) 31(39.2%)
total	237(47.4%)	263(52.6%)

Table 9. Comparision of attitude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between 6 months ago and now

		ever heard	never heard
age(years) < 30	6 months ago	85(48.3%)	91(51.7%)
	now	103(49.0%)	107(51.0%)
30~50	6 months ago	165(56.9%)	125(43.1%)
	now	101(46.5%)	116(53.5%)
> 50	6 months ago	103(47.2%)	115(52.8%)
	now	33(45.2%)	40(54.8%)
*education < middle school	6 months ago	151(44.2%)	185(55.1%)
	now	95(42.0%)	131(58.0%)
high school	6 months ago	130(55.0%)	106(45.0%)
	now	94(48.2%)	101(51.8%)
> college	6 months ago	72(64.3%)	40(35.7%)
	now	48(60.8%)	31(39.2%)
total	6 months ago	353(51.6%)	331(48.2%)
	now	237(47.4%)	263(52.6%)

는 의료진단체에 대한 인식<sup>1)</sup>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이하가 95명(42.0%), 고졸이 94명(48.2%) 그리고 대재이상은 48명(60.8%)으로 고학력일수록 인식<sup>1), 2)</sup>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과거의 조사와 비교해볼 때<sup>1)</sup> 6개월전의 51.6%에서 현재 47.4%로 감소되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연령별차이에 있어서도 30세미만에서 48.3%에서 49.0%, 30~50세에서 56.9%에서 46.5% 그리고 50세이상에서 47.2%에서 45.2%로 감소되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중졸이하가 6개월전의 44.9%에서 42.0%, 고졸이 55.0%에서 48.2% 그리고 대재이상이 64.3%에서 60.8%로 교육수준에 차이없이 감소되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9)

## 고 찰

본조사는 대구시내 1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구시역에 서주하는 주민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 병원에 가정의학과가 대구시내 3개 3차진료기관중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내 가정

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고 다른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데는 무리가 뒤따르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가정의학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79.8%로 과거의 공업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sup>3)</sup> 55.7%와 서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sup>4)</sup> 65.6%와 서울시민의 대학생강생들을 대상으로 한<sup>5)</sup> 65.5%, 경주기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sup>6)</sup> 60.0%보다 높은 결과를 얻었으며, 6개월전의 본병원 가정의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sup>7)</sup> 34.6%보다는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대구시이에서 시역사회의 긴장분석해결과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한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95.5%<sup>11)</sup>, 93.2%<sup>12)</sup>에 비해서는 아직 일반인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식 습득방법은 의과대학생<sup>11~12)</sup>이나 가정의학과 방문자들이 주의 친서들에게 지식을 습득한 것<sup>9)</sup>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정의학에 대해 알게되고<sup>10)</sup> 이방면으로 홍보활동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에서 언령이 적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인식도는 높았으며 이 것은 과거의 조사와 비슷하였

나 연령이 적을 수록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는 결과는 앞으로 가정의학의 미래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고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때의 과선행도는 84.4%에서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아 환자들이 의료기관이용시 편리함을 중시하였으며 이것은 과거의 조사<sup>14)</sup>와 일치하였고, 이것이 개인의 원과 종합병원내에서의 가정의학과의 상점이라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 결과가 인식도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설문 자체의 내용에서 가정의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 준 다음 질문한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등록제도의 인식도에 있어서는 26.0%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 아직까지 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가족등록제도의 인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며, 본원에서 가족등록제도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등록제도란 환자개인이 아닌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질병과 가족간의 상호관계를 알고 척결한 자본 및 의료의 조정과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등록제도의 인식만 증가하면 가정의학과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리라 본다.

가정의학제도의 필요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78.0%로 과거의 70.0%<sup>10)</sup>, 86.8%<sup>14)</sup>로 비슷하였으나, 6개월전 연구<sup>6)</sup>에서의 60.2%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구지역에서도 가정의학의 필요성과 호응도가 서서히 늘어 가는 것으로 보아진다

연령별에 있어 과거의 연구에는 저연령층에서 필요성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에서 필요성이 높은 이유는 노화현상에 의한 복합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많아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교육수준에 있어 대재이상이 93.7%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아 고학력에서 필요성이 높았으며, 이것은 과거의 다른 조사와 일치하였다.

의료전달체계 인식도에 있어서는 47.4%로 6개월 전의 51.6%<sup>6)</sup>와 비슷한 것으로 본 때 아직도 의료전

낙제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로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은 과거 다른 연구와 비교할 때 증가하였으며 6개월전의 본병원 가정의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6)</sup>와 비교하여도 상당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개업단과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에도 많은 환자를 취급하는 현실<sup>15)</sup>에 비추어 초전문화된 단과전문의와 분화된 의료를 횡적으로 가족을 단위로 통합하고 수렴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와의 조화가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 자명하다 여기에 반족하지 말고 국민들의 편집된 전문화체계에 대한 불만을 가정의학과에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족등록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정의학의 원칙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요 약

우리나라에 가정의학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며, 세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가정의학과 외래가 생긴지 1년이 지난 지금 가정의학과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990.8.15부터 9.15까지 내원한 신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에, 6개월 전 본원 가정의학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sup>6)</sup>와 비교 분석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는 “들은적이 있다”가 6개월전의 34.6%보다 본 연구에서 79.8%로 훨씬 높았다
- 2 복합증상이 있을 때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고 싶다”는 것이 84.4%로 “여러과에서 진찰받고 싶어하는” 15.6%보다 훨씬 높았다
- 3 가정의학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가 6개월전의 60.2%보다 본 연구에서 78.0%로 훨씬 높았다
- 4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는 “들은적이 있

더”가 6개월전의 51.6%에서 본 연구에서 47.4%로 변 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 때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필요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Rakel RE *Textbook of Family Practice*, ed 5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4, pp 5-6
- 2 Taylor RB *Family Medicine, Principles and Practice*, ed 2 New York, Springer Verlag, 1983, pp 1-4.
- 3 Shireo DB, Hennen BK *Family Medicine - A Guidebook for Practitioners of the Art*, 1980, pp 3-7.
- 4 Fry J *The Place of General Practice. Int J Health Service* 1981, 2 165-169.
- 5 윤방부 가정의학, 초판 서울, 의약출판부, 1981, pp 13-15
- 6 정양희 3차진료기관의 가정의학과 방문환자의 인식도 및 이용양상 경북대 석사논문, 1990.
- 7 윤방부, 강성규, 김철수 일부공업지역 근로자

등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학회지 1983, 4(12) 20-25

- 8 조경환, 정종훈, 최광위외 일부지역사회주민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조사, 가정의학회지 1986, 7(3) 1-5
- 9 윤방부, 강성규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조사, 가정의학회지 1984, 5(9) 1-7
- 10 배철영 가정의학의 인식도에 관한 추적연구, 가정의학회지 1989, 10(4) 5-9
- 11 윤방부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학회지 1980, 1(1) 5-9
12. 이상진, 강영호, 김기락외 의과대학생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982, 3(11) 39
- 13 김민석 가정의학과 방문환자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가정의학회지 1982, 3(11) 39.
- 14 문대식, 이명준, 김지은외 지역사회주민의 가정의학 및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도조사, 가정의학회지 1989, 10(6) 1-10
15. 강성규 개업전문의의 전문과목이외의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 선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논문집 (의, 치, 약학분야) 1981, 6 239-260

### 설 문 지

- 1 성별, 남, 여
- 2 연령,
- 3 학년,
- 4 현기주지,
- 5 평상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이용하는 기관은?  
1) 약국 2) 개인의원 3) 병원 4) 대학병원 5) 민방요법 6) 한의원 7) 기타
- 6 위의 의료기관을 택하시는 이유는?  
1) 거리가 가까우므로  
2)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3) 잘 낫기 때문에  
4) 전문적이기 때문에  
5) 시설이 좋으므로

- 6) 친절하기 때문에  
7)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8) 주위의 권유로  
9) 기타
- 7 의료기관선택시 주 증상의 전문의를 찾아갑니까?  
1) 그렇다  
2) 꼭 그렇지는 않다  
3) 아니다
- 8 바람직한 의사상은?  
1) 신뢰성  
2) 전문성  
3) 포괄성  
4) 학력  
5) 인격  
6) 연수  
7) 기타
- 9 낫으로 다니는 1차 의료기관의 유무?  
1) 예(                  )  
2) 아니오
- 10 가정의학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들은 적이 있다  
2) 들은 적이 없다  
\* 들어보셨다면 어떤 경로로 들으셨습니까?  
1) 신문, 방송, TV를 통하여  
2) 이웃 혹은 가족을 통하여  
3) 기타(                  )
- 11 가정의학이란 양병, 성병,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하는 학문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나  
2) 필요없나  
3) 잘 모르겠다
- 12 오늘 가정의학과를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까?  
1)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 개인의원에 나니나가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3) 다른 전문과로 의뢰받기 위해서  
4) 기타
- 13 복합적인 증상(예를들면, 여러 과에서 진찰받아야 될 때)을 가지고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진찰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정의학처럼 복합증상을 같이 진찰받고 싶나  
2)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 과를 돌아다니겠다
- 14 가정의학과에서 1차진료는 쉬 후에 회귀한 질병이나 심한 경우에 해방전문과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 1) 들은적이 있나
- 2) 들은적이 없나

15 가정의학과에서 주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추적과 늘 긴장상태를 해주는 가족등록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들은적이 있나
- 2) 들은적이 없나

\* 가족등록 기회가 주어지거나면 등록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6 1989. 7. 1부터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외에서 없이는 진료받을 수 없지만 가정의학과에서는 진료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들은적이 있다
- 2) 들은적이 없다

17 위와 같은 의료신탁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 3) 잘 모르겠다

= Abstract =

## The Awareness of Family Medicine an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young Woo Ahn, MD, Mee En Lee, MD,  
Hee Cheol Kang, MD, Chul Young Bae, MD; Dong Hak Shi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The family medicine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since 1978 and started at Dong San Medical Center, Keimyung University since 1989

Since then, a lot of progress and achievements has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medicine as the new discipline which modify and compenaste the disadvantages of speciality system fragmented health care which has been adopted since early 1960

However, there has been a few base line data on family medicine, especially in Daegu

Therefore, to assess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ward the family medicine an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mong general population in Daegu will be beneficial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family medicine

At first, 500 patients who came to the family medicine department were selected as the sample for this study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ve ever heard about family medicine was increased from 34.6% to 79.8%,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done 6 months ago

2 The rate that multiple complaints patients with want to visit family medicine department was 84.4%

3 The rate of respondents who thought that family medicine is necessary for the Korean medical care was increased from 60.2% to 78.0%,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done 6 months ago

4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ve ever heard abou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was from 51.6% to 47.4%,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done 6 months ago

From the above results we can notice that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family medicine has been getting improved

Key Words Awareness of family medicine, Health care delivery system